

I. 개 요

1. 일시 : 2013. 12. 07 (토) 16:00~18:0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3. 발표자 : 김형식 교수(서강대학교)
4. 참석자

한민수 박사	(KIEP 국제거시팀)
김영세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윤정 교수	(서강대학교)
이미혜 전문연구원	(한국은행)
김지섭 박사	(KDI)
조성훈 교수	(연세대학교)
김성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선빈 교수	(연세대학교)
이철인 교수	(서울대학교)
정용승 교수	(경희대학교)
김배근 교수	(중앙대학교)
오지윤 박사	(KDI)
윤 택 교수	(서울대학교)
박구웅 교수	(인천대학교)
김진일 교수	(고려대학교)
김배근 교수	(중앙대학교)
김영식 교수	(서울대학교)
김용진 교수	(아주대학교)
신관호 교수	(고려대학교)
김동헌 교수	(고려대학교)

5. 제 목

- "Business Cycle Uncertainty and Economic Welfare"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 이 논문은 불확실성을 가진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1987년 Lucas가 불확실성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노동의 공급이 경제주체의 최적화를 통해 결정되는 모형을 고려하는 연구는 없었고, 이 논문은 이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의 영향을 분석함.
- 정상 균형(steady state)에서의 후생효과를 비교할 경우, 경제주체가 소비와 노동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보다 클 때 후생이 보다 높아지는 것도 가능함.
- 따라서 오직 소비 데이터만 가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효용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면 매우 잘못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

III. 주요 논의사항

- ☐ 실제 경기변동은 특정 사람에게 보다 고통이 커질 수 있지 않는가?
- 현재 모형에서 각각의 경제주체는 개개인에 대한 충격을 완전히 분산할 수 있으며 오직 경제전체에 대한 충격만을 고려하고 있음.
- ☐ Lucas가 후생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가?

- 그런 말을 정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맥락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음.

□ 어떤 경제 내의 마찰(friction)이 경기변동을 발생시킬 경우 후생에 대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논문의 모형에서는 주어진 충격에 의해서 경기변동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충격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외생적 성장이론과 같이 충격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충격 자체의 평균이 증가해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가?

- 평균이 같은 값으로 유지하는 충격(mean preserving spread)을 고려할 경우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

□ 후생이 크고 작고는 결국에는 효용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가?

- 여가가 어떻게 효용함수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효용함수의 계수값에 따라서 후생에 대한 비용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음.

□ 경제주체는 저축도 가능한데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도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변동이 커질수록 노동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저축을 늘릴 수도 있으며, 특히 개방경제하에서는 변동이 커질수록 보다 많은 자본이 축적되게 됨.

□ 변동과 관련된 계수인 타우가 커지면 변동이 적어지며 충격이 로그를 취한 저급분포에 가까워질 경우 변동의 영향이 모두 평균에 대한 충격(mean effect)로 될 수 있지 않으므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후생이 음의 값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 보다 왼쪽으로 후생이 음의 값이 되는 경계점이 이동하기는 하나 이런 경계점

은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변동과 관련된 계수인 타우가 커지면 변동이 적어지며 충격이 로그를 취한 저급분포에 가까워질 경우 변동의 영향이 모두 평균에 대한 충격(mean effect)로 될 수 있지 않으므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후생이 음의 값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 보다 왼쪽으로 후생이 음의 값이 되는 경계점이 이동하기는 하나 이런 경계점은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논문의 결론이 옳다면 즉 충격의 변동의 증가가 후생에 좋을 수도 있다면, 경기변동을 줄이는 정책(stabilization policy)보다는 경기변동을 늘이는 정책(destabilization policy)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가?

- 주어진 모형 하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 결론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모형에 다른 종류의 마찰을 추가함으로써 변동의 증가가 후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함.

□ 변동의 평균에 대한 효과는 언제나 발생하는가?

- 충격이 곱하기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하나, 더하기와 같은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효용이 낮아질 수도 있음.

□ 장기실업과 같은 현상도 일반적인 경기 변동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 Barro의 최근 연구에서는 장기실업을 재난과 같은 현상으로 보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보고 있고, 다른 현상 즉, 왜 적은 금액만을 만기에 제공하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지 설명하고 있음.

□ 많은 국가를 고려한 개방경제 모형에서 완전히 충격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한가?

- 단순히 자본의 축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endowment economy)에서는 고정된 소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자본의 축적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음.
- 한 국가의 후생과 다른 국가의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올라간다면, 왜 후생에 있어서의 비용이 없는 것인가?
- 모형이 예측하는 개방에 의한 효과는 작게 나타나며, 2003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보여주는 한편, 현재의 모형에서는 충격의 변동과 관련된 파라미터 타우가 변화시 후생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